

‘여성독립운동가’ 활동 담은 달력 제작

서훈 받은 독립운동가 간호사 16명 수록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비롯한 여성독립운동가 357인을 담은 달력이 제작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여성독립운동가, 미래를 여는 100년의 기억’을 주제로 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독립운동가 달력’을 제작했다.

이번 달력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독립을 성취하는 일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는 성평등 정신을 기반으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독립운동가의 노력과 활동을 재조명하고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

달력은 여성독립운동가 357인으로 구성됐으며, 2018년 11월 까지 훈장 등 서훈을 받은 분들이다. 이를 통해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태어난 해와 풀이기는



서훈을 받은 여성독립운동가 357인을 가나다순으로 실은 달력이 제작됐다. 사진은 4월 달력으로 간호사 4명이 수록됐다.

해, 주요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나다순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었다.

여성독립운동가 달력은 전국 박물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및 기관 등에 배포됐다. 여성가족부와 국립여성사건 시관 홈페이지를 통해 달력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진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노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달력 제작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독립운동에 헌신한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고,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독립운동가 달력에 실린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조사를 완료한 26명 중 서훈을 받은 여성 간호사 14명과 추가 발굴된 간호사 중 2명 등 총 16명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직장 내 괴롭힘 금지한 근로기준법 7월 16일 시행

시행 앞서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안을 마련한 후 간담회 개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만들어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매뉴얼은 △검토배경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취업규칙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진숙 기자 islee@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1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1만명 ... 결정 이행 3만6200여명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1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명을 넘어섰고, 3만 62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4일 처음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다.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을 산출했을 때는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3만622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8519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이 59.1%로 가장 많았다.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

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대다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3월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먼저 연명의료결정법 상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추가해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치료효과 없이 인종과 정 기간만 연장하는 다른 기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결정제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즉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 및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환자 본인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도입해 올해 진료실적에 대해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혜진 기자 hijoo@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만나다”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만나다’ 주제로 세미나 및 특별전시회가 윤종필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주최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한 간호사들의 활약상을 되돌아보고, 그 고귀한 이름과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전시회는 2월 26~28일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렸으며, 전시 개막식은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됐다. 이어 세미나가 2월 27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간호사들은 일제강점기에 뜨거

운 민족의식과 기개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독립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군대해산 당시 부상병을 간호하는 데 헌신했고, 군자금 모집·사회운동·첩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러시아 연해주, 만주 용정, 중국 상해 등 국외에서도 항일운동과 간호사 양성교육에 힘썼다.

이는 근대 간호교육을 통해 배출된 간호사들이 전문직업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면서 지식인으로서 사회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한 결과이다. 교육받은 전문직 간호사들은 민족의식과 항일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주

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008년부터 간호역사뿌리찾기사업을 시작해 한국의 근대간호 역사자료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실로 ‘한국간호역사 자료집’ 제1권 및 제2권, ‘한국근대간호역사 화보집’이 발간됐다.

김려화 간호사의 석사논문이 원동력이 돼 독립운동을 한 간호사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으며,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을 발간하게 됐다. 이 책에는 조사가 완료된 독립운동가 간호사 26명이 수록됐고, 이중 서훈을 받은 분은 16명이다. 이후 8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발굴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올해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WHO 환자안전 회의 ... 쟁다 선언문 발표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한 제4차 환자안전 장관급 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 쟁다에서 3월 2~3일 열렸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 WHO 회원국 장관·차관이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한 ‘Patient Safety 2030’ 결과를 공유하고, 환자안전의 중요성 및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와 함께 보편적 의료보장과 환자안전 관련 경제적 효율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

발히 이뤄졌다.

박능후 장관은 전체회의 발언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환자안전 제도 및 활동사례를 공유해 국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WHO 회원국들은 회의결과를 반영한 ‘2019 환자안전 쟁다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중·저소득 국가의 환자안전 증진 △환자안전을 위한 환

자관련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국제질병기준(ICD)을 활용한 환자안전 위한 국제의료사과 분류체계 구축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보고 및 학습 시스템 이행 및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박능후 장관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가졌다. 우리나라의 메르스 대응 경험과 선진

화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의약품 공급·품질 등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타우피크 알 라비아 사우디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한-사우디 간 보건의료 협력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희망했다.

주혜진 기자 hijoo@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앙 BB·CC 크림을 ‘한글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글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국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업)